



**검찰은 여전히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눈치를 보고 있는가.
명태균 게이트를 덮으려 했다는 의혹, 김건희 녹음파일 등
공천개입 정황을 확인하고도 소환조사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검찰은 답하라!**

명태균 게이트가 윤석열의 위헌 · 불법적 비상계엄의 트리거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통과를 눈 앞에 둔 김건희 특검법을 막고 김건희를 보호하기 위해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민 모두를 내란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어제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습니다.

검찰이 명태균 게이트 사건의 핵심 의혹인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거래' 증거를 확보하고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명태균 게이트 수사 과정에서 '명태균이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움직여 김영선 의원의 공천권을 가져왔고, 그 대가로 9천여만 원을 받았다'라는 강혜경 씨의 진술과 통화 녹음파일 등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런 증거를 확보하고도 '정상적인 월급'이라며 아무 문제 없다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보고서가 작성된 시점은 지난 해 10월 8일로,

명태균 게이트를 둘러싼 의혹이 불거지던 때였습니다.

창원지검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고 약 20일이 지난 2024년 10월 31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이 김영선 국회의원 공천에 개입했음을 보여주는 육성을 공개하자, 그제서야 창원지검은 명태균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던 것입니다.

검찰은 명태균 게이트를 덮으려고 했는지 국민들께 답해야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검찰은 지난 해에 김건희가 22대 국회의원 선거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증거를 확보했고, ‘황금폰’의 소재를 파악하고도 부실한 압수수색으로 찾아내지 못했으며,

결정적으로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명태균과 공천 관련 통화를 했고 통화 녹음파일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소환조사하지 않았다는 것도 드러났습니다.

지난 해 10월 14일, 검찰은 명태균이 방문했던 포렌식 업체를 압수수색해 명태균의 ‘황금폰’ 자료 일부를 입수했습니다.

검찰은 명태균이 김건희에게 김영선 전 의원의 2024년 총선 경남 김해갑 단수공천을 요구하는 텔레그램 대화 캡처본과 명태균이 김건희에게 부탁해 김영선 의원에게 전화를 걸었던 내용 등 김건희의 공천 개입 정황 증거를 상당수 확보한 수사보고서를 작성했음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검찰이 지난 해 11월 9일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명태균과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김영선 공천과 관련한 통화 녹음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이에 더해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명태균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도 확보해서 ‘공천개입’ 의혹을 교차 검증했습니다.

이 수사보고서의 제목은 “5월 10일 보궐 선거 공천 발표 하루 전인 2022년 5월 9일경 공천 관련 메시지 및 통화 확인” 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창원 의창구가 경선이 될 거 같다는 카톡 메시지를 보냈고 명태균은 “김건희가 윤상현 의원(공천관리위원장)에게 두 번이나 전화를 했다” 면서 김영선 단수 공천이 확실하다고 설명하면서 “의문나는 게 있으면 사모님(김건희)께 전화드리면 됩니다” 라고 보냅니다.

그리고 검찰은 1시간 뒤인 5월 9일 오전 10시 1분, 명태균과 윤석열이 통화한 사실과 녹음파일이 존재함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10분 뒤 명태균은 다시 이준석 대표에게 “윤석열 대통령께서 저한테 전화오셨습니다. 윤한홍, 권성동 의원에게 그런 말 들은 적 없다고 하시면서 윤상현 의원에게 전화해서 김영선으로 전략 공천주라고 전화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카톡을 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5월 9일 오전 10시 49분, 명태균과 김건희가 약 1분간 통화했고, 이를 검찰은 이 통화 녹음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명태균이 자신의 PC에서 해당 파일을 재생한 시점까지 확인해 수사보고서에 담았습니다.

결국 검찰은 지난 해 11월에 명태균과 윤석열, 김건희, 이준석이 김영선 공천과 관련해 수시로 대화를 나눈 사실을 파악하고 수사보고서까지 만들었는데도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조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검찰은 답하십시오!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공천개입 정황을 확인했음에도 왜 윤석열-김건희 앞에서 수사가 멈췄습니까.

결국, 그동안의 창원지검 수사보고서가 대검과 법무부, 대통령실을 거쳐 윤석열-김건희도 보고 받았을 것이며 이를 덮기 위해 윤석열이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이 딱딱 들어맞지 않습니까.

오늘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대점에 왔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창원지검 수사보고서를 보고받았는지 답하십시오.
그리고 이를 박성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했는지 답하십시오.
김주현 민정수석은 이를 보고받았는지 그리고 윤석열-김건희 부부에게 보고했는지 답하십시오.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황금폰 포렌식 후에 필요하면 김건희를 소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난 해 검찰 수사보고서에 김건희의 공천개입 정황이 확인됐음에도 소환조사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답하십시오.

이에,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강력히 촉구합니다.
검찰이 작성한 명태균 게이트 관련 수사보고서를 국민 앞에 공개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당장 김건희를 소환 조사하십시오.
또한 윤석열, 김건희, 윤상현, 오세훈, 홍준표 등 일명 명태균 리스트에 들어있는 인물들과 관련해 철저히 수사하십시오.

2025년 2월 14일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일동

- 단장: 서영교
- 부단장: 김병기, 한병도
- 위원: 김승원, 전용기, 김기표, 김용만, 박군택, 박정현, 송재봉, 양부남, 염태영, 이성윤, 이연희, 허성무